



25일 오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컵 4강전 한국 대 일본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한 박지성(맨 왼쪽) 등 한국선수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왕의 귀환’ 실패했지만 희망을 봤다

승부차기 3연속 실축, 숙적 日에 0대3 패... 아시안컵 결승행 좌절

28일 자정 우즈베크와 3·4위전

한국 축구가 숙적 일본과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결정적인 순간 내준 페널티킥 기회와 승부차기 실축으로 51년 만의 우승을 향한 꿈을 접었다.
한국은 26일 카타르 도하의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1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대회 일본과 준결승에서 120분 연장 끝에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0-3으로 패했다. 페널티킥 때문에 웃고 울다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분투를 삼긴 아쉬운 한판이었다.
전반 23분 박지성이 상대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 기회를 기성용이 침착하게 살려 선제골에 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승리는 한국 편에서 미소 짓는 듯했다. 하지만 전반 36분 마에다에 동점골을 허용해 연장에 들어간 한국은 연장 전반 7분 황재원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다.
다시보기 화면 상으로는 페널티 지역 외곽 정면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낸 것으로 보였지만 알 감다 주심은 선수들의 항의에도 아랑곳 않고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혼다가 맡은 슈팅을 골키퍼 정성룡이 몸을 날려서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에 달려들려는 호소가이가 재차 슈팅을 날려 리드골을 성공시키는 바람에 한국은 1-2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을 감안하더라도 불필요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장면이었다. 더구나 한국은 앞서 조별리그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여러 차례 저지른 뒤였다.
조별리그 바레인과의 1차전에서는 광태휘가 페널티킥을 내주며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수비진 구성에 예를 먹었고 인도와 3차전에서도 재차 페널티킥을 내주고 4-1로 승리해 골득실로 조 1위가 될 기회를 놓쳤다.
다행히 연장 후반 막판 황재원이 회심의 왼발슛으로 ‘속죄 동점골’을 날려 승부를 2-2 원점으로 되돌렸지만 이번에는 승부차기가 발목을 잡았다.
구자철이 1번 키커로 나섰다지만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탓인지 실축하고 말았고 뒤이은 이용래도 성공시키지 못했다. 일본의 세번째 키커 나가토모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어가 불씨를 살렸지만 세번째로 나선 홍정호 역시 상대 골키퍼에 막혔고, 뒤이은 일본의 네번째 키커 곤노가 침착하게 골망을 가르면서 결국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짧은 파’를 내세워 한층 성장한 경기력으로 우승의 꿈을 키워던 한국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신예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는 바람



에 발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1960년 2회 대회 우승 이후 51년 만에 돌아온 아시안컵 정상 탈환의 기회를 놓쳤고, 1988년 카타르 대회(준우승) 이후 무려 23년 동안 아시안컵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도하의 좌절’을 맞본 한국은 오는 28일 자정 우즈베크스탄-호주의 4강전 패자와 3·4위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지성, 빛 바랜 100번째 A매치

10년 9개월만에 금자탑 한·일전 패배에 아쉬움

프로축구팀은 물론 잘 나가는 대학팀들조차 눈길을 주지 않았던 한 선수가 A매치 10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축구대표팀 주장 박지성의 이야기다.
‘작은 거인’ 박지성은 25일 카타르 도하의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 일본과 준결승전에 출전해 국제축구연맹(FIFA) 센추리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A매치 데뷔전 이후 10년 9개월 만이다.
비록 마지막 한·일전이 될지도 모를 이날 경기에서 패하며 아쉬움이 컸지만, 박지성은 풀타임을 뛰면서 주장으로서 구실을 다했다.
센추리클럽은 FIFA가 인정하는 국가대표팀 간 경기인 A매치를 100회 이상 뛰는 선수

그룹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에서 센추리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홍명보(135경기), 이운재(132경기), 이영표(126경기), 유상철(122경기), 차범근(121경기), 김태영(105경기), 황선홍(103경기)에 이어 박지성이 8번째다.
박지성은 100경기 중 축구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인 월드컵 본선에서만 14경기를 뛰었다.
한국축구의 아이콘을 뛰어넘어 아시아축구의 자람으로 급성장한 박지성은 2006년 독일 대회, 주장 완장을 차고 뛴 2010년 남아공 대회까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으면서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의 큰 힘이 됐다. 미드필더인 박지성은 A매치에서 13골을 넣었다.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득점 기록도 세웠고, 월드컵 본선 최다 득점(3골) 타이거를 간경까지 갖고 있다. /연합뉴스

‘11m 룰렛’ 1번째 키커 기성용이었다면?

신예들 실축 ‘조감독 선택’ 논란

한국이 아시안컵 축구대회 일본과 준결승 승부차기에서 한 골도 못 넣고 완패하며 51년 만의 정상 탈환 꿈을 접자 축구팬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11m 룰렛’으로도 불리는 승부차기에서 경험이 적은 젊은 선수들만 키커로 내보낸 조광래 감독의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느냐’는 것이다.
키커 모두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이고, 특히 이용래와 홍정호, 손흥민은 A매치 출전 경험이 4~6경기에 불과한 신예들이라 중압감이 심한 승부차기의 키커로 이들을 낙점한 것은 조 감독의 과신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다. 한국은 이날 승부차기에서 첫 번째 키커로 구자철을 내세웠고 2,3번째 키커는 이용래와 홍정호가 차례였다. 하지만 셋 다 실패했다. 일찌감치 승부가 갈려 공을 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4, 5번째 키커가 손흥민과 기성용이었다.
승부차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1번)과 끝(5번)은 꼭 제일 좋고 배짱도 두둑한 베테랑 선수들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이 2002 한일 월드컵 8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꺾고 4강 신화를 썼을 때에는 팀내 최고 선인이었던 황선홍과 홍명보가 각각 1, 5번째 키커로 나서 깔끔하게 상대 골문을 갈았다. 하지만 구자철의 첫 번째 키커 실패가 되면서 한

층 더 커진 부담이 다음 키커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졌다. 키 능력이 가장 좋고 이날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는 등 컨디션이 좋았던 기성용을 먼저 차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조 감독 역시 경기 후 “순번은 사전에 연습을 좀 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너무 지쳐서 그런지 연습 때 했던 능력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렇다면 주장인 박지성은 왜 승부차기 키커 명단에 없었을까? 박지성은 수원공고 3학년 재학 시절 금강대기 8강전에서 승부차기 실축으로 대학 진학의 조건인 전국대회 4강 진출을 이루지 못하는 등 승부차기와 악연이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성공시켰지만 될 수 있으면 승부차기에서는 키커로 나서지 않으려 한다. 박지성은 경기 후에도 “연장전이 끝나고 감독님이 결정하신 순서”라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K리그 돌풍위해...광주FC 해외 전훈

광주 FC가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2011시즌 K리그 돌풍을 준비한다.
프로축구 신생팀 광주 FC 선수단이 26일 중국 쿤밍으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났다. 앞서 강전에서 동계훈련을 소화했던 광주는 내달 15일까지 해외 전지훈련을 갖고 K리그 출격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번 훈련에는 최만희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33명 등 총 40여 명이 참여한다. 내달 4일까지 쿤밍에서 훈련을 갖는 광주는 이후 상하이로 건너가 조지력 강화에 나선다.
쿤밍 1차 캠프에서는 황주복성, 성도, 순천, 국안, 충청 등 프로팀과의 대결을 통해 팀 전술과 체력훈련을 실시한 뒤 상하이에서 연습경기를 통해 베스트 11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만희 감독은 “중국 전지훈련이 올

한해 축구 농사의 기반이 될 것이다”며 “스피드와 체력을 통한 조지력 갖추기에 집중하고, 다양한 전술과 시스템을 시도해 광주만의 팀컬러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대 주장을 맡은 공격수 박기동은 “신생팀의 약점이 오히려 선수들에게 강한 의욕과 정진력, 열정과 패기로 뭉칠 수 있는 강점이 되고 있다”며 “강간 명이 참여한다. 내달 4일까지 쿤밍에서 훈련을 갖는 광주는 이후 상하이로 건너가 조지력 강화에 나선다.
쿤밍 1차 캠프에서는 황주복성, 성도, 순천, 국안, 충청 등 프로팀과의 대결을 통해 팀 전술과 체력훈련을 실시한 뒤 상하이에서 연습경기를 통해 베스트 11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만희 감독은 “중국 전지훈련이 올

Advertisement for Hongspeice furniture featuring images of a bed, dining table, and sofa, with text describing the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